

월간

# 망고통신

칼라 보고서

2013년 10월

제 1 호

망고통신 집중보도  
빈곤퇴치캠페인 / 도서관 프로젝트 현장

망고통신 칼라소식  
아티스쿨 / 라온아띠 커뮤니티 미팅 현장

망고통신 특집보도  
이킹콩 단원의 미지의 마을 탐험기



**‘우리 행복 할 수 있나요?...’**  
 더욱 깊어진 고민과 이야기

## 망고통신 제 1호 발간!

스리랑카, 이곳 칼라는 지금 망고의 계절입니다. 얼굴 크키의 망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망고가 정말 맛있고 엄청 많아서 망고통신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쓰는 은어인 망고(혹은 꿀, ‘편하다’의미)의 의미도 아닙니다. **망(잊을 망) 꿀(괴로울 고)**, “힘듦과 어려움을 잊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망고통신이라 작명 하였습니다.

## 편집 및 발행인

22세최찌쭈 23세남진미 24세이킹콩 25세박칭총

\* 망고통신은 라온아띠 규정을 준수하며 한글사용을 지향합니다.

## ‘난 이것만 먹을거야’

스리랑카, 바티칼로아 지방의 작은 마을 페리야 칼라. 4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최씨수(22세)**  
난 달콤한 것만 먹어,  
그리고 저녁밥은 중요치 않아  
아침밥이 엄청 소중한

**남진미(23세)**

난 맛있는 것만 먹어,  
음식은 해주는 것만 먹을 거야  
하지만 감자는 깎아줄 수 있어



**이킹콩(24세)**  
난 딸기맛만 먹어,  
진짜 딸기던 가짜 딸기던 상관없어  
오로지 핑크색이기만 하면 되

**박칭총(25세)**

난 다 먹어,  
그게 맛있는 것이던, 맛없는 것이던  
먹을 것이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 망고통신 창간호 순서

망고통신 창간호는 심도 깊은 내용과 다양한 이야기를 알차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캠페인 D-21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은?

처음 End Poverty 캠페인을 계획하면서 식수문제라던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4명 팀원의 힘으로는 어렵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싱할라족과 비교해서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캠페인 D-14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캠페인

이곳에서 영어학원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루이(Louis)선생님의 소개로 타밀 걸 스쿨 교장선생님을 소개 받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원래 목적은 팀원들에게 학교의 영어 수업을 부탁하시려는 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수업은 진행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End Poverty 캠페인의 취지를 말씀 드리고 승낙을 받아 10월 15일 4, 5학년(9세, 10세) 학생50여명 대상으로 칭찬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타밀 걸 스쿨 교장선생님과의 만남 (아래) 코이카가 세운 학교로서, 학교를 소개 받았다.



컬리지 앞에서 도서관 모금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씨(Sasi)선생님의 도움으로 센트럴 컬리지에서 7, 9학년(12세, 14세)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17일 칭찬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학년 학생들에게는 타밀 걸 스쿨에서 진행 할 방식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9학년 학생들에게 조금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자세한 진행방식에 대해서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팀원들의 End Poverty 캠페인의 의도와 간략한 계획을 들으시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셨습니다. 또한 진행하는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하셨습니다.

(위) 센트럴 컬리지 교장선생님과과의 만남 (아래) (왼) 사씨 선생님과과의 인연이 된 장면 (오) 학교 구석구석을 소개 받았다

칼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캠페인 진행 전 마을의 어느 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할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며 팀원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캠페인 D-7 '당신을 칭찬하세요'

캠페인 1주일 전, 팀원들은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타밀 걸 스쿨 학생들과 센트럴 칼리지 7학년학생들에게는 외모, 시험 점수, 돈의 양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 못함을 설명하고 본인의 장점과 친구의 장점을 찾아 잎사귀에 적는 활동을



캠페인에 참가한 한 주민들이 칭찬으로 채운 나뭇잎들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리 만들어간 '행복나무'에 붙여 나무를 완성하는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센트럴 컬리지 9학년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의도는 같으나 활동부분에서 차이를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닉부이치치 사진과 동영상 보여주고 종이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림에서 보여지는 나의 장점, 그리고 보여지지 않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장점을 적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길거리 캠페인은 행복나무를 이용하되,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빈곤의 한 종류임을 알리고 공감을 얻는 활동에도 많은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탐색하여 선택하고 이 캠페인의 설명과 통역을 도와줄 친구들을 구하였습니다.



(위) 캠페인 전 올리피아 클럽 멤버들과의 만남  
 (아래) (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진미단원 (가운데) 클럽멤버들과 함께 캠페인 진행중인 킹콩단원 (오) 단골상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있는 지수단원



## 캠페인 D-3~1

### 아띠의 노력이 담겨진 캠페인

각 학교에 캠페인내용과 목적 그리고 자세한 시간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전달하였고, 미리 수업에 필요한 교구재들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도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사용 할 프레젠테이션 또한 팀원들의 사진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각 캠페인 활동 시 쓸 나뭇잎 종이와 행복나무 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길거리 캠페인 시 사용 할 타밀어 설명보드를 제작하고 통역을 도와줄 친구들과 정확한 캠페인 내용, 목적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위) (왼) 키가 크고 작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 돈이 많고 적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왼) 시험성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 똥똥하고 날씬함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맨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1) 타밀어 보드를 만드는 지수,진미,킹콩단원 (2) 캠페인 보드를 칠하는 킹공,칭총단원 (3) 행복나무를 색칠하는 칭총단원 (4) 행복나무를 색칠하는 지수,킹콩단원 (5) YMCA로고를 그리는 진미단원

## 캠페인 D+0~2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캠페인 첫날인 15일은 타밀 걸 스쿨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빈곤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 O/X문제를 통해 빈곤이 단순히 돈의 부족,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대적 부족도 빈곤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친구와의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나뭇잎에 자신의 칭찬과 친구의 칭찬을 쓰는 활동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할 때 마다 "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하며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행복나무를 완성하였습니다.



(위) 캠페인 후 타밀 걸 스쿨 학생들과 함께  
(아래) (왼) 학생들의 나뭇잎을 붙여주는 칭송단원 (오) 학생들의 나뭇잎 작성을 돕는 킹콩단원



캠페인 둘째날, 마지막날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센트럴 컬리지와 지역병원 앞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빈곤의 개념은 다양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대적 부족도 빈곤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보드를 보여주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나뭇잎에 자신의 칭찬을 쓰고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마을친구들이 통역을 도와주어 정확한 캠페인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중인 팀원들 (아래) 캠페인 종료 후 올림피아 스포츠 클럽 멤버들과

셋째날 오전에는 센트럴 컬리지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7학년학생에게는 타밀 걸 스쿨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9학년에게는 닉부이치치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면서 보여지는 장점과 보이지 않는 장점을 찾아 발표하고 서로가 공감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캠페인 후 센트럴 컬리지 학생들과 함께 (아래)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팀원들

## 캠페인, 그 이후

### 행복하고 뿌듯해요

캠페인 이후 팀원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하였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어서 기뻐요. ‘행복나무에 잎사귀가 늘어날 때마다 행복하고 뿌듯했다.’ ‘길거리 캠페인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는 많았으나 어르신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아쉬웠다.’ ‘처음 End Poverty 캠페인에 대해 비관적이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다.’ 라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 든든한 지원군을 얻다

캠페인을 통해 이 마을의 주민과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칼라YMCA와 팀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센트럴 컬리지와 타밀 걸스 쿨의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팀원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리서치 설문지를 만들면서 센트럴 컬리지의 사서선생님은 설문지의 구성과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통역을 도와준 친구들과 차후 활동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스멤버로서 활동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라온아띠와 칼라YMCA의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른 인지도의 향상과 인식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올림피아 스포츠 클럽멤버들

# ‘도서관,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죠?’

지난 9월, 팀원들은 넘치는 패기와 열정으로 도서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도서관을 이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말 모금운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10월 모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집중보도 두 번째는 도서관 프로젝트를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모금활동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의 힘, 그리고 도서관

팀원들은 주민의 힘으로 만든 도서관을 원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비록 책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칼라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YMCA연맹에 모금을 요청하는 것 부터, 스리랑카 YMCA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기부를 받아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금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이 실패했을 시 스리랑카YMCA연맹에, 그리고 그것도 어려울 시 한국YMCA연맹에 요청하자는 것으로 의견도출을 이뤘습니다.



지난 달에 소개되었던, 모금활동 준비모습

### 중고책 50권, 15,000 루피

그래서 아띠들은 모금활동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중고책 50권과 기부금 15,000루피(약 150,000원)로 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새책을 약50권

정도 구입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띠들은 10월 2일부터 시작하여 3주간, 아침 저녁 각 1시간씩 길거리에서 모금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 3주간의 모금활동 시작

칼라YMCA에 책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칼라팀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한 시간씩 (오전 6시 30분 - 7시 30분, 오후 5시 - 6시) 유동인구가 많은 두 개의 거점에서 두 명씩 한 팀이 되어 중고 책과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긴 목을 가다듬으며 큰 목소리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상 웃으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원) 학생들과 함께 모금활동 중인 킵콘단원  
(오) 기부자 명단을 받고 있는 칭총단원





하루 1,000루피! 그러나...

10월 2일에 시작한 모금활동이 초반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아도 '아직 초반이라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저 우리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아 줄 거라 생각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센트럴 컬리지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진행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 해주셔서 기부금과 모아지는 책의 권수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목표했던 금액과 모금된 금액의 격차가 일정한 것을 보며 점점 동기를 잃어버렸고 모금활동에 대한 의지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수집된 책들의 대부분이 현재 칼라YMCA 도서관이 갖고 있는 오래된 책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옛날 교과서들과 철 지난 잡지였습니다.



(원) 학생들과 모금활동 독려중인 진미단원



(오) 기부한 학생과 모금활동 중인 찌수단원

## 진정 원하는 건가요?

모금활동 2주차가 지나도록 기부금 액과 모아지는 책의 권수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한 마을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기부를 권유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눈을 피하거나 자꾸 내일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록 팀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 모금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 들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모금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어른들과 팀원들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주로 계획했던 도서관 모금활동을 2주차에 잠시 중단하고 우리는 도서관 사업의 시작점으로 관점을 옮겨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 5루피 내면 망고 3개줘요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에 두 명의 소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10루피를 내며,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직접 찾아온 그 마음이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들은 팀원들의 집 앞에 있는 망고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소녀들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5루피 정도를 들고 와서 망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웃기지만 씩씩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 들이대면 성공하리라

처음 도서관 모금활동을 계획하면서, 당연히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이 모금의 목적과 의도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라고 팀원들

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씨 선생님께서 모금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러한 방법은 이곳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의 모금활동문화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직접설명하고 기부를 받는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림픽아 스포츠 클럽멤버들도 암 세미나를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각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부문화와 이곳의 기부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 도서관, 시작은 좋았지만...

### 도서관 목적에는 동의...그러나

몇 일간의 피드백과 회의를 거친 결과 9기 단원들이 도서관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서관 사업의 본래 목적은 칼라 YMCA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YMCA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 팀원들이 간과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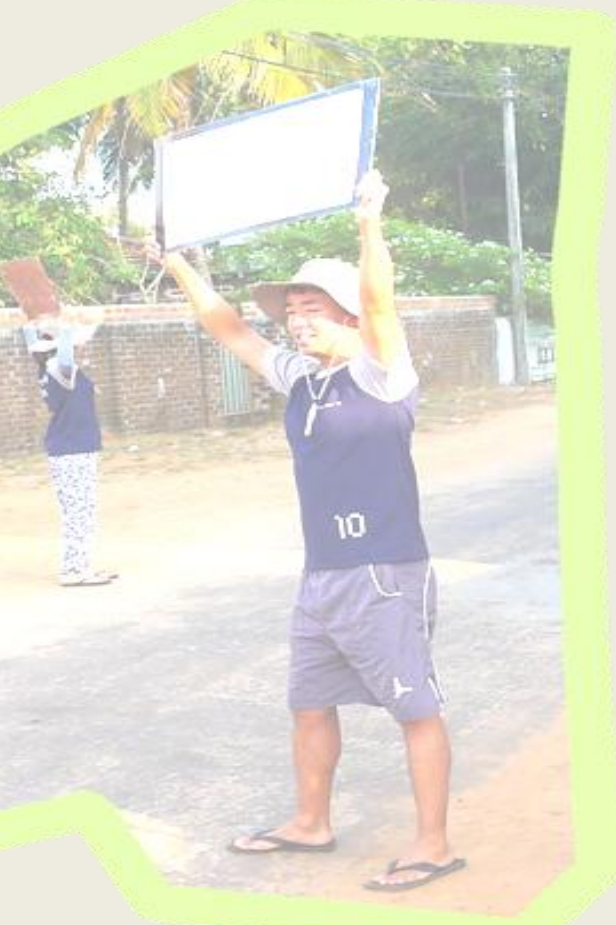
그러나 당시 YMCA 내부 조건상 새로운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될 자원이 매우 부족했고 과거에 상점으로 사용되던 빈 공간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되었지만 그나마 많다고 할 수 있는 책들이 칼라YMCA가 가진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전부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YMCA의 상황과 여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민들의 필요, 즉 마을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9기로부터 도서관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왜 도서관인가?” “왜 하필 도서관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은채 그저 당연히 이어나가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그러나 2주 동안의 모금활동으로 팀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마을이 진정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미단원과 칭송단원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도서관 중단? 아니면 이어서?

###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팀원들은 도서관이 실제로 이 마을의 필요가 아니라면 중단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드라 간사님과 이 문제에 관해 몇 일간 회의해본 결과, 지난 3월부터 이 도서관 사업에 많은 비용과 활동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에 서야 도서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결정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리서치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그래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서 도서관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주민들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하여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리서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서관의 나머지 공간에 대한 조사와 이외에 마을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쉽지 않은 리서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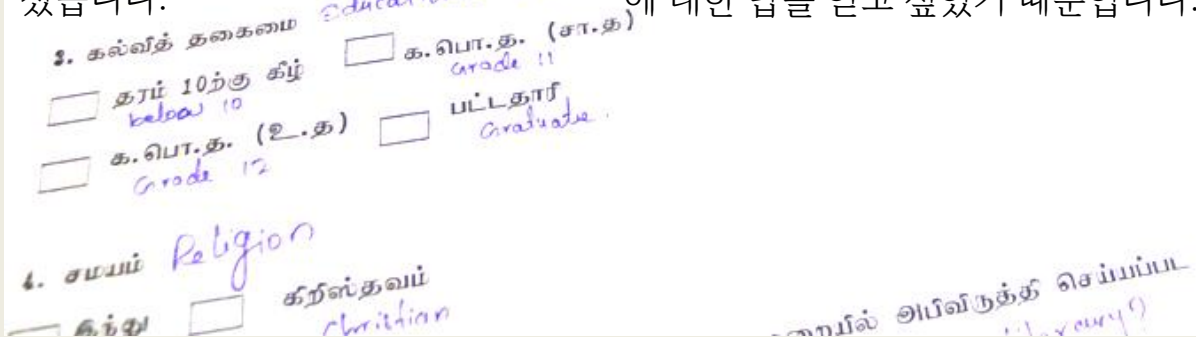
### 설문지제작과정에서의 어려움

도서관 모금활동에 대한 피드백에서부터 출발한 이번 리서치는 9기 단원들의 설문조사 과정을 참고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걷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설문지 초안이 완성되자마자 인드라 간사님의 도움으로 번역을 하고 칼라 YMCA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몇몇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응답하지 않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기에 설문지 내용과 방식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설문지



## 어려운 준비, 그러나 성공적인 리서치

### 무엇이든 이곳의 방식으로

예비설문 이후 설문지 제작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도서관 모금활동과 End Poverty 캠페인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센트럴 컬리지의 사씨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팀원들은 설문지에 도서관에 대한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도서관 이외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수요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리서치

설문지가 완성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원래 5일로 계획되었으나 생각보다 길어진 회의와 계속된 수정으로 이틀만에 설문조사를 마무



(위) (왼) 사씨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오) 주민들을 설문중인 킹콩단원

(아래) 주민들을 설문중인 인드라간사님과 찌수단원



리 지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올림피아 스포츠클럽 멤버들의 도움으로 예정된 시간 안에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통역을 도와주면서 리서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리서치의 한계점 보완

### 마을의 원로와 인사들을 찾아서

단답형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은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마을 어른들과 다양한 스포츠 클럽 청년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는 칼라의 문제점”,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필요”에 관한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마을의 원로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선생님과 로사라야 에듀케이션클럽 회장님께서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로 청년들과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게 된 점을 문제로 꼽으셨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책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즉 좋은 도서관과 더불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할 수 있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이는 공교육과 시험에만 집중된 교육열이라 학원, 그리고 과외수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할 뿐 독서와 그 외의 교육활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 도서관은 이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리서치 이후 ‘주민들이 좋은 도서관의 필요성과 장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토록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칼라의 여러 스포츠클럽 회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아래) 로사라야 클럽 회장님과 만남을 갖고 조언을 들었다

## 스리랑카와 우리나라 비슷한 청년들의 모습

### “난 스리랑카가 싫어”

스포츠 클럽 청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9월부터 마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왔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칼라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전 지역, 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두 달여간 칼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 종일 마을 곳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스리랑카는 좋지 않은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어떠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스리랑카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시기

스포츠 클럽 청년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일자리 부족’이었고 그들에게 도서관은 ‘취업’이라는 관심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청년 실업’을 주요한 문제로 꼽고 있었습니다. 5개월 안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자리 부족’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새로 구상하기도 어렵고 풀어내기 힘든 문제일 것 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기수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돈을 원하는 청년들

### 브로커만 돈을 버는 현실

칼라의 많은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 두바이와 사우디 등으로 일을 하러 나가있습니다.

이 또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4명의 형이 있는데,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타밀사람들은 정부일자리(경찰 등 공무원)진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이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곳 대부분의 가정들은 외국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 드디어 도서관 공사가 시작되다

9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도서관의 시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판자로 단순히 공간만을 나눠 놓았던 가벽을 허물고 벽돌을 쌓아서 튼튼한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사용하기에 불편하던 출입문도 편리한 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 부족해서 독서환경 조성이 어려웠었는데, 전면에 큰 창문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페인트 칠도 함께 되어 있어서 전보다 훨씬 쾌적함과 깔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의 한쪽 벽면은 공사가 덜 된 상태이고, 조명기구의 추가 설치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왼) 불편한 문이 제거된 도서관모습 (가운데) 창문이 만들어지고 편리한 문으로 교체 (오) 가벽을 허물고 벽돌을 쌓았다



## ‘아티스쿨,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아티 스쿨을 시작한지, 2달이 된 칼라YMCA. 현재 영어(월/수/금), 태권도(화), 세계지리(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수업마다 6세부터 14세까지 약 30명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30명 정도되고, 그 숫자가 일정하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이고 매우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팀원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10월 아티스쿨의 모습들

## 영어 수업

###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기

4개의 반별로 학생수는 다르지만 9월과는 달리 출석하는 학생수가 일정해졌습니다. 이로써 꾸준히 출석하는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활동에서 아띠스쿨을 홍보한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새로 영어수업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초반에 했던 레벨테스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반이 잘못 편성되는 경우

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업진행에 차질을 겪거나 차후에 다시 반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어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반이 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친구와 같은 반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아띠스쿨 영어수업에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위) D반, 찌쑤단원 (아래) (왼) C반, 킹콩단원 (가운데) B반, 진미단원 (오) A반, 칭총단원

## 태권도 수업

### 재미와 흥미를 결합한 태권도

초반에는 16세, 17세 정도의 학생들도 수업을 들었지만 한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나니 보통 10세 내외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중입니다. 태권도 기본 동작(차렷 자세, 주춤 서기, 지르기, 차기) 수업 4주 수업 후, 태권체조 시작하였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규학교에는 체육수업이 없는 만큼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따라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준비 운동조차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없이 연속 1시간 수업을 진행하여 지친 아이들이 중간중간 물을 많이 찾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 학생들을 지도중인 모습 (가운데) 한명 씩 직접 교정하기도 한다 (오) 직접 지르기를 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후 피드백을 가진 후에 학생들에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기 보다는 교구재를 이용하여 흥미와 체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르기 시간에는 보지 않는 잡지를 이용하여 한 명씩 격파하기도 하였고 발차기 시간에는 미트를 활용하여 모든 아이들이 발차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태권도 수업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  
 (2)앞에서 학생들을 지도중인 찌수,킹콩단원  
 (3)(4)두그룹으로 나누어서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

## 세계지리 수업

예상외의 엄청난 반응. 그러나...

결국에는 관심 있는 아이들만 오게 될 것이라는 팀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륙별로 세, 네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특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의 대륙을 살펴해보았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인사말도 알려주어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인사말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의 실제로 체험해보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수업시간 마다 마무리로 그 날 배운 수업 내용을 다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맞춘 다던지, 키워드 카드게임 등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수업보다 프로젝터의 필요성이 절실



한 수업입니다. 많은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노트북 2대로 프로젝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드라 간사님과 커미티 미팅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리수업 모습  
노트북 2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드디어 열린 커미티 미팅…효과는 글썄’

### 한달만에 열린 커미티 미팅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라온아띠 커미티 미팅이 10월 4일에 열렸습니다. 아롤, 칸덴, 인드라, 저스틴, 아난티 아주머니 등 커미티 멤버가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활동들과 도서관 프로젝트와 아띠스쿨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고장난 프로젝터와 사무총장의 부재로 인한 고충을 말하고 문제 해결을 건의했으나 10월 29일 두 번째 미팅을 가질 때 까지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 그 효과는 글썄…

이곳에서 활동한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열린 커미티 미팅이지만 커미티 멤

버 모두 빨리 회의를 끝내고 싶어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회의 때 했던 약속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루 빨리 라온

아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칼라YMCA의 상황 개선을 위해 적절한 방향과 조언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에 열린 커미티 미팅 모습

## ' 10월의 이야기를 한눈에, 망고단신'

아띠들에게 10월은 9월보다 더욱 칼라를 알고 칼라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삶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망고단신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 속눈썹이 멋진 레한의 생일파티

칭총 단원 영어수업 학생인 레한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생일이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뻐하는 레한의 모습에 더욱 즐거웠습니다.

또한 생일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케익을 한입씩 먹여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곳의 문화는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 센트럴 칼리지, 스승의 날 행사

면담을 위해 학교에 들렀다가 그 날 스승의 날 행사가 있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생이 모여 앉아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며,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펼치는 모

습을 보면서 흡사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밴드의 연주에 맞춰 꽃 목걸이를 받고, 행진하는 모습은 이색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왼) 전통램프에 불을 붙이는 찌수단원  
(가운데) 선생님들과 다 같이 사진촬영  
(오)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학교밴드





## 올림피아 클럽, 암세미나 참가



올림피아 스포츠 클럽은 연중 한차례씩 이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년도는 암 관련 세미나를 연다며 팀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지역의 인사들과 저명한 의학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는 진행되었고 비록 타밀어로 진행된 강의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스포츠 클럽에서 일년 동안 기부로 세미나 자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위한 자리를 세미나를 연다는 것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 첫 규칙이 생기다! 청소당번



9월은 집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서서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더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달라 매번 청소를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거실과 화장실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부터는 청소당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번갈아가며 화장실과 거실을 두 명씩 맡아 청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띠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환영! 마타라Y, 귀국단원 방문



10월 25일부터 4일간, 마타라YMCA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4기 허소현, 태국8기 양승희 단원이 칼라에 방문하였습니다.

같이 있는 동안 이곳 생활에 필요한 조언들과 팀원들의 고충과 고민들을 들어 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싱할라지역인 마타라의 문화와 타밀지역인 칼라와의 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문화교류와 문화 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 짧지만 긴 여운, 자전거 여행

빈곤퇴치 캠페인과 도서관 모금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난 뒤 팀원 전체에 ‘소진’이 온 듯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쳐만 가고 일은 계속 쌓여가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쌓여갔습니다. 또한 힘든 일에 비해 보이는 결과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팀원들에게 그나마 휴식의 기분을 느끼게 해 준 것은 옆 마을로의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팀원, 넷이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달려나가는 그 시간 덕분에 10월을 어떻게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해 점점 불만만 쌓여갔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바라본 풍경들은 스리랑카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왼) 자전거로 소소한 일탈을 꿈꾸는 팀원들  
(오) (위) 넓은 초원을 달리는 찌썩단원  
(아래) 야생화가 피어있는 넓은 초원

## ‘스리랑카 어디까지 가봤니?’

### Thuraineelavanai(쓰레이니라바이니)…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

‘스리랑카 어디까지 가봤니?’… 제 목부터 범상치 않나요? 한 항공사의 광고를 보면, 스리랑카의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와 장소들이 화면 가득 소개되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킹콩단원이 소개할 곳은 어느 가이드북에도, 어느 관광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 작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느낄 것이 많고 느낀 것이 많은 이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일 매달 돌아오는 Poya Day\*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모처럼 쉬게 된 우리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개인시간을 만끽했다.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이날도 작은 배낭과 함께 집을 나섰다. 칼라를 통과하는 메인로드를 따라 남과 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날은 드넓은 Lagoon이 있는 서쪽 내륙으로 가보고 싶었다.

칼라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길이 내 앞에 나타났다. 순간이 길로 들어서면 가고 싶었던 서쪽 내륙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자전거 앞 바퀴는 그 길을 향해 서서히 들어갔다



\*Poya Day

매달 보름 부처님을 기념하는 스리랑카의 공휴일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들소한 마리가 길을 가로막았다. 자세히 보니 용변을 보는 들소를 나는 매너 있게 기다려주었다.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나는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고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다.

50마리? 100마리 정도 될까? 들소 때가 내가 서있는 길 양 옆으로 환영식이라도 하듯 서있었다. 목욕하는 들소, 식사하는 들소, 용변 보는 들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들소들이 멍청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들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나?” “여기 스리랑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외국인에게 관심이 많군” 두려움과 신기함을 간직한 채 쭉 죽은 듯 조용히 길을 통과하였다.

들소 떼를 지나자 이번엔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다. 그리고 저 멀리 야자수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보였다.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그곳 Thurainilavanai(쏘레이니라바이니)다!



“내가 가이드 해줄게!” – Yana, Harsal, Thulaanjan

마을입구에 들어서자 항상 밝게 인사해주는 칼라주민과는 달리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를 반겼다. “칼라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놀라움을 간직한 채 나는 더욱 깊숙이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안쪽에 있는 힌두사원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다. 신기한 광경에 나는 사원 앞을 기웃거렸다. 그때였다! \*

\*힌두사원은 금요일마다 다양한 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What are you doing here?” 3명의 앳된 청년들이 다가와 물었다.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분히 나를 소개했다. “난 칼라에서 왔고 이곳 마을을 둘러보는 중이야” 그러자 3명의 청년은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Yana 애는 Thulaanjan, Harsal! 내가 가이드 해줄게 나만 따라와!”라고 말한 그들은 벌써부터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렸다. 갑작스러웠지만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갔다.



## 이상한 점심식사

Yana, Thulaanjan, Harsal 이들이 가이 드해준 마을은 흥미로운 것들로 넘쳐 났다. 악어가 산다는 늪지대부터 악마 의 나무(2명이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나무)까지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30분 정도 둘러봤을까? 가이드들은 이번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자 했 다. 자전거와 함께였지만 장시간 이곳 저곳을 둘러본 터라 배가 고팠던 나는

실례가 아니라면 기꺼이 점심을 먹 겠다 말했다. ‘이상한 점심식사’는 그 령게 시작되었다.

알고 보니 그 셋은 서로 친척이었다. Yana의 초대로 집에 들어간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15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옹기종기 바닥에 앉아 있는 광경을 본 나는 Yana에게 물었다. “이분들이 다 가족이야?”

“아니! 절반은 친척들인데 넌 외국인 이잖아 너 보고 싶다고 왔어~” 더 당황 스러웠다... “같이 먹는거 아니야?”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Yana에게 물었 다. “우린 이미 먹었어~” 그랬다. 그들 은 이미 밥을 먹고 바닥에 앉아 의자 에 앉은 외국인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귀한 손님이라고 나만 의자에 앉았다)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마을의 풍경



## 순박하고 행복한 사람들

체할 것 같았다. 15명이 바닥에서 나를 쳐다보는 탓에 가뜩이나 긴장하던 나의 위장은 더욱 뒤틀렸다.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는 안되겠다.

내 머리 속은 아는 타밀어를 전부 꼬집어 내느라 바빴다. 정말 아는 단어 문장들을 총동원했다. 쭈퍼!(맛있어요!), 에나꾸 빠씨!(나 배고파요!), 뭇따이 비르뵘(계란 좋아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고령의 할머니는 너무 웃으셔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다.

“스리랑카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신 낮마(작은이모)가 물었을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1달 있었습니다!” 그들은 1달 만에 계란을 좋아한다는 말을 타밀어로 말하는 외국인을 경이롭게 바라봤다.(사실 대단한 실력은 아니었다) 나만 먹는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다.



엄مام(할머니)는 좋은 손자하나를 얻었다며 나머지 3멤버도 꼭 보고 싶다 하셨다. 다음엔 3멤버와 함께 오겠다고 약속 드린 나는 무한한 감동과 함께 집 정문을 나섰다. 저 멀리 내가 안보일 때까지 문 앞에 나와 손 흔드는 Yana, Thulaanjan, Harsal의 가족들의 모습은 그 감동을 더욱 크게 했다.

점심식사에 초대해준  
Yana, Harsal, Thulaanjan 가족과 함께

### Epilogue

나머지 멤버들도 Thuraineelavanai의 멋진 풍경과 마을사람들을 좋아했다. 지금도 그 곳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다.

## 최씨수 22세, 대구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신 없이 달려온 한 달이었다. 9월만큼이나 10월도 4주가 사흘처럼 지나간 듯 하다. 팀장이라는 책임감과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끌고 온 것 같다. 31일간 단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쓰면서 알았다.

매달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살 것 같다. 나는 이곳에 오면 내가 봉사를 하러 온 것인 만큼 물질적 대가는 얻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의 보람이나 행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에 비해 그 만족감이 너무나 미미하여 내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나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열정과 사랑은 다 소진되고 내 발목을 잡아 끄는 억지스러운 책임감만 남은 듯 하다.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좀 나아지려나? 이 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서 찾고 싶다.

## 이킹콩 24세, 서울

부담 없이 편하게 활동합시다! 10월 한달 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해온 나만의 문구였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칼라Y의 프로젝트는 부담있게 활동하기 충분했다. 더욱이 10월 초에 찾아온 슬럼프는 “이 나라에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하지만 항상 우울할 수 만은 없듯이 10월 중반에 접어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부담감은 사라지고 열정은 더욱 깊어졌다.

특집보도에서 소개했지만 나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9월부터 이미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하고자 했던 나는 정말 구석구석 많은 곳을 찾았다.

다양한 사람들, 공간, 문화 등을 체험하며 스리랑카를 양파껍질 정도? 경험했던 나는 이곳의 매력에 푹 빠졌다. 삶의 많은 부분을 종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우선시 하는 공동체. 그들의 좋은 인상이 이곳에서의 활동에 더 힘을 주는 것 같다.

더불어 11월에는 스리랑카 문화탐방도 있으니 더 큰 기대와 함께 11월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박칭총 25세, 대전

9월에 비교하면 10월은 행복했고 즐거웠다. 음식이 맛있고 잘 먹어야 즐겁고 행복한 나로서는 9월에 아플 때보다 잘 먹을 수 있고, 건강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실망도 많았고 실패도 겪었고 분노가 때때로 일어 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제일 행복 할 때는 손으로 밥 잘 먹어서 좋다는 말을 들을 때와 피부색이 이곳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이야기 들을 때인 것 같다.

뭔가 변태스럽기도하고 이게 왜 좋냐고 물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 이곳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이 아닌 칼라의 주민이 되어가고 있다는 나만의 뿌듯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엄마는 이 시꺼매진 피부와 얼굴을 보면 또 한 소리 하실 게 분명하다.

## 남진미 23세, 원주

뭐 다들 그리 할 말이 많을까.

혼자 하려고 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찢찢맷을 일이지 만 넷이라서 가능했다. 그래서 그런가, 다른 팀원들에 비해 활동 면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다.

End Poverty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주신 칼라 주민 몇 분이 계셨다. 캠페인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다.

아피스쿨 영어수업을 하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표정으로 대화가 가능함을 느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무표정을 지으면 “솔지 Angry!”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귀여운 아이들 ^^ 아 진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렀다.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이 때를 기준으로 이제 스리랑카에 있을 날도 90일도 채 남지 않았단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진짜 열심히 살다가 가련다!

# 11월 그들에게 벌어질 일은?



드디어 간다, 쉬자... 스리랑카 문화탐방  
도서관 개관날짜 확정... 카운트다운 시작  
어린이를 유스멤버로... 칠드런클럽

한국사람이 그리워요... 한국Y중간평가  
칼라YMCA에 사람을... 영어토킹클럽  
그 외,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커밍순

##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집인 및 발행인 4인은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리랑카 그리고 칼라의 이야기. 더불어서 저희 4명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으려고 했지만, 부족한 필력과 실력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다음달에도 망고통신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11월달 에도 지치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망고통신’은 무자비한 배포와 퍼나르기를 권장하며, 입소문을 환영합니다. 부모님의 친구의 친구의 아들 딸까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부모님까지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매일 팀원들의 집에 놀러 오는 딜루와 함께